



ON AIR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다만,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와 '델타' 변이의 백신 예방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델타 플러스는 3배에서 최대 5배 정도 백신의 항체 형성을 저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예방책은 접종을 완료하는 건데요.

화이자 완료시 88%,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완료하면 67% 가량 델타 변이를 예방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백신 예방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전파력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세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기존 코로나19보다 2.4배 정도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델타 플러스도 이와 비슷하거나 좀더 강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인도에서 28개 연구소 연합체가 델타 플러스 변이의 특징을 정리했는데요.

"전파력이 증가했다", "인체에 더 쉽게 침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델타 변이에 비해 크게 달라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체에 더 쉽게 침투한다는 건 기존 델타변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데, 백신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델타 플러스는 델타 변이 표면의 돌기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추가로 더 생긴 겁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 편의상 이름에 '플러스'를 붙인 건데요.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더 잘 달라붙도록 변형되서 침투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추가된 변이 부분이 백신의 효과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방역당국 발표 내용 보면 감염자 1명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 델타

[기자]

지역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역학조사로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데 위중증, 사망률을 낮추기 때문이죠.

이번 델타 플러스 감염자들도 백신 접종 덕분에 중증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접종을 받았더라도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한중현

■ 제보하기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 전화 : 02-781-1234
- ▷ 이메일 : kbs1234@kbs.co.kr
-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 예방접종(3차접종) 적극 참여



-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KF94) 착용
- ★ 환기(일 3회, 10분 이상) 실시



- ★ 대면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 6인 이내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
 - 대화시 마스크 착용

KBS NEWS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신민혜 medical@kbs.co.kr
신민혜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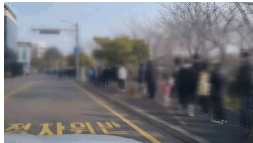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더보기



개그맨 신동엽 코로나19 확진...방송 줄줄이 타격



제주서 하루 4천 명 가까이 확진...보건소 대기 행렬



경기 9만 6684명 최다 확진...하루 10만 명대 발생 코앞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옛새때...전체 진화율 70%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